

을 가져오. 것이요 또한 자칫하면 남에게 不快를 끼친기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마음이 열마음과 다름바 또한 없으려니와 나는 나의 이手記의 祭壇 위에 구태 누구의 像龕도 모시지 안호련다.

나는 가장가까워야 할 나와 너무 멀었고 가장 알아야 할 나를 너무 몰랐다. 이語句는 그처럼 神秘하고 高尚한哲理을 意味한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沒却하고 無關心하고 等閒視한 自身에대한 不絶한 反省의 機會만을 提供하는것으로 足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한 어면 倫理的意識이 아니요 心理的意識에만 끝날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好奇心이다. 나는 이제 조그마한 또는 크다면 探險의 길에 오른다. 어떤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발에 밟히고 내손에 쥐일는지 모르며 그저 漠然한 期待만을 가질뿐이다. 獅子와 黑人과 湖風만이 사는 荒蕪한沙漠도 지낼 것이다. 저는 새벽 단빛아래 잔나비울고 陰凶한 猛獸의 발자취소리 에 山靈조차 스산해할 숲도 지낼 것이다. 有時로는 孤獨과 悔恨에 쓰러질때 藐姑射山의 神人을 맞나 氷雪같은 肌膚를 어루만질 수도 있겠거니 困苦와 渴欲에 顛倒일때는 별빛 더러져

# 秋夜默想

金 四 祚

兄! 前番 奉天에서 주신편지는 반가히바다 보았습니다. 이렷케 쓸々한 鄉村에서 孤獨과 焦燥와 煩惱으로사라가는 저의게 있어서 南北이 落々한 兪異域에서 萬感의 腦中으로 이江山을 떠나신 兄이 情다히 보내주시는 글월을 받을때마다 열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孤獨과 焦燥에싸힌 이神經이 열마나 慰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兄! 저는 及也兄의 慰安해주시는 보람도 없이한 病者가 되고 마랐습니다. 그病이 무슨病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구라여 그 누구의게라도 말하고 싶지도 않음뿐 말을 할 내야 할 수도 없습니다. 오죽 병어리 병가슴알듯 우황든소 처림 저홀로알게되고 저홀로 피로워 할뿐이옵시다. 人世苦海! 人生煩惱! 라하였다면 저는 이

있는 緣陰속의 오아씨스도 맞날 것이다. 사람은 自己를 숨기려는 反面에 自己를 自慢自惚하는 傾向도 삼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自己를 突然히 過少貶斥하고 自卑하고 賤視하는 버릇도 注意하여야 하리로다. 그것은 흔히 謙遜아닌 謙遜을 內容하고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저어도 우리의 慾望의 運動場을 自己에게 가장 近接한 最少範圍안에 局限하여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自己 혼자 自己를 즐기고 오직 自己에 대해서만은 自己의 全部를 披瀝하는 忠實을 배워야 할 것이다.

自己의 無能을 느끼고 自己의 不足을 發見할때 慨歎만이 能手가 아니요 厭惡自棄만이 對策이 아닐 것이다. 相對者의 侮辱에 對한 善한 報應은 항상 激怒를 잊어야 하는 것이니 自己에게 또한 冷靜을 지켜야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精神이란 항상 外界의 接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재마음대로 차고 고쳐야 할 그것을 膨大시키고 過重히 하여 스스로 그重荷에 呻吟하는 버릇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愚鈍하기 때문에 事物을 半分밖에 보지 못하는 精神을 기정기에 그마음 有善한 事物에 傷害를 받지 않는 幸福도 享有할 수 있으리로다. (말)

病으로 이렷케 피로워도해보고 슬피도해보는 것이 오히려 嘖々한 일이라고 생覺합니다. 또한 저는 이病으로因하여 無限光明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엇지 이러한病을 차버리고 단하로 인들 坎々한 地獄世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病이 사라지는 날에는 저의 生도 사라지는 날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兄! 저가 至今居處하고 있는 病室은 南向인데 東便으로는 窓門이 있었읍니다. 그窓門을 열고 바라보면 檜株의 老松들이 連해 있는 풀언덕(草岸)이 보입니다. 至수는 그 언덕의 풀들이 쌀々한 가을바람에 半靑半黃의 悲哀의 秋色이 靚었읍니다. 兄! 저는 언제나 그 이름모를病이 저의神經을 피롱게 할때는 窓門을 열어서 제치고 저적은 풀언덕

을 바라보면서 默想에 잠기는 것이외다。

兄! 저는 오늘밤도 東便窓門을 열어 제치고 구름한점없는 맑은 天空! 찌질찌질 밝은 月光! 이것들을 眸眼없이 바라보면 病은 神經은 交想과 幻想의 바다에서 어지러울때로 어지러워지는 것임니다。 이때 저 풀 언덕에서는 이름모를 풀버래 소리가 더욱 가을밤의 悲愴을 도와줍니다。

K兄! 가을달은 더욱이 밝은 듯합니다。 그리고 달 밝은 가을밤! 鄉村의 밤은 참으로 깨끗합니다。兄! 깨끗하고 고요한 鄉村의 가을밤! 원宇宙가 찌질찌질 밝은 가을달밤! 이 밤을 翫어 할사람이 누구겠음닛까 그러나 兄! 저와 같이 病은者! 모든 生活의 理想과 相尅만 되야가고 意欲과 個性을 終是 살너볼수없는 者의 志는 何等의 趣味를 가져볼수없음니다。 오히려 病은 神經을 피로히 할뿐이외다。兄! 前番편지에 「X」에서도 우리가 憧憬하던 그 生活이란 좀처럼 實現할수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憧憬하고 理想하고 있는 그 生活이란 永々 우리의 발걸과 環境에서만 우리의 神經을 피로시키고만 말것일까요 兄! 우리가 理想하고 憧憬하는 境地란 우리가 想像할

K兄! 이러한 不運의 存在者의 生活이란 完全히 그의 理想이 生活과 相尅될뿐이외다。 理想과 相尅만 되여기는 生活에서는 아무런 趣味도 信念도 가져볼수없게됩니다。 하기가 저 自身도 때로는 一種의 趣味도가 저보고 一片의 信念에 困해서 이기다하면서 別々窮理로써 眞將來를 約束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兄! 눈을 번쩍 뜨고 矛盾과 相과 우리의 不利스러운 條件 밑에서만 苦를 먹는 어지러운 現實을 살펴볼때는 그만 모든 趣味와 信念은 긴한숨으로 變히야 病은 神經을 피로히 할뿐 何等의 勇氣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兄저는 病은 心臟에서 가엾게도 고맙게도 빛이 어주는 저 病은 信念! 病은 趣味! 病은 意欲이나 마 차라리 저 달빛이 고요히 흘러나가는 鄉村의 풀밭! 無風地帶에다 김숙한 구덩이 하나를 汲의 파고 파고 아무도 모르게 무더클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구덩이에서 싸이냐고 있이 피여 成長한後 단 한알이라도 열매가 매저준다면 그러한 多幸이 없으리라고 生覺하겠음니다。 그러나 兄! 其亦 부즈런슨 生覺이겠지요 原因結果로서 만되는 宇宙의 眞理를 모르고 僥倖主義者의 가장 어리석은 意欲이겠지요 차라리 現實에서 모든 것

수있는 境地라면 우리가 그 境地를 언제나 到達할수있는 境地가 안일까요 아! 想像하고 안이 目前에 鞭히 발아보면서 到達치 못하고 實現치 못하는 理想의 境地여 憧憬의 世界여!

K兄! 우리는 理想의 境地에 到達하고 憧憬의 境地를 實現하기爲하야는 좀더 勇氣를 내고 耐어지고 持久戰을 해야 될것이 아닐 否! 그렇듯 함은 그 무슨 悲運일까요 오늘 吾의 敎界의 銀盤 위에 빛이 種々の 矛盾相! 우리의 理想과 意欲의 向上을 阻害하고 있는 모든 不利의 條件! 얼마나 우리의 神經을 피로케 할닛까。 이러한 現實의 霧靄氣에서 우리들은 풀타는 意欲을 시켜 버리고 個性을 추이고 理想을 무질너버리게 되는 것이 안일닛까 兄! 우리는 이곳에서 亡命치않으던 運을 不運을 만나게 되고 自負心으로써 시러지는 衷心한 敗北者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吾의 敎界의 境은 이로써 變々한 任務과 責任을 가진 青年으로서 이러한 運命에서 活舞臺를 일히 버리고 마는 者가 얼마나 많음닛까 魔強法弱의 法城의 末運이란 本是 이러한 것인가요 꺼져진 法城이 어! 敗北의 가엾은 境은 이어!

을 돌살너버리고 病은 神經을 찌질대로 찌끼여 보고 슬플대로 슬퍼보는 것이 저의 의무요 몇々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運命의 神이여! 저의게 그러한 勇猛性을 줄수는 없을까요.....

K兄! 저는 이렇케라도 空想의 世界의 天井에 오르보고 보니 病에 原因 神經은 空然히 興奮될 때 로되야 인제는 저주된 사자와 같이 입을 버리고 달너들든 現實의 랄줄! 妖鬼와 같이 저의 周圍을 싸고도는 가지의 矛盾相도 조금도 두려운 生覺이 나지 않습니다。 오죽 잇을것은 잇어지고 없어질것은 없어지고 슬플것은 슬플고 피로워질것은 피로워질 眞理인니까요。 印度의 熱을 가져오는 너물도 이江山에서 退步가 되고 北國의 寒風이 한때를 보는 宇宙 自然의 眞理도 그러한이까요 K兄! 인제 그만스겠습니다。 머슴들 亦是 그 말갈해요 벌써 時計가 세로三時나 되었음니다。 저 풀밭 버에들의 소리도 疲困에 잠이든 양심입니다。 至今 잠은 兄이 계시는 그곳 밤거리도 騎士의 銃 소리가 疲困에 조르는 沈靜의 安息의 밤이 되었겠지요。 兄! 저는 이편지를 마즈막으로 하겠음니다。 저의 生活上 別다른 變動이 있을때까지 究호로 兄의 健康을 빌고 아무쪼록 兄의 X가 實現되게 바라나이다。 그리고 李兄의 계도 이러한 저의 鄉村 生活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平慶北鄉村에서)